

동국대 국악과 교수 법현 스님(우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이 한국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멕시코, 일본, 미국 등 세계 순회공연에 나선다.

법현스님, 해외무용포교 나서

멕시코-범패·범고춤 등 10여종 선봬

일본-관동 대참사 영산재 공연

LA-나비·바라·타주춤 등 선사



법현스님이 7월~9월 해외불교무용 포교에 나선다. 무대에서 법현스님(오른쪽)이 나비춤에 맞춰 범패음악 '짓소리' 장단을 하고있다.

세계 25개국에서 참가하는 이번 행사에서 스님은 범패 '가지계', '짓소리-거령산'을 비롯해 '가야'를 주제로 한 불교 무용, 범고춤, 나비춤, 향발춤 등 10여종의 불교무용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24일에는 일본으로 자리를 옮겨 효성(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자), 율타(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자), 성법(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이수자), 은진(중요무

형문화재 제 50호 전수생), 심진스님(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전수생) 등 태고종 영산재 이수자 스님들과 함께 관동대지진참사 영산재 공연을 펼친다.

이날 행사는 '신중작법', '상단 권공', '천수바라', '도량계', '범고춤', '회심곡', '공덕계' 순으로 진행된다.

또 8월 31일에도 일본 동경에서 영산재 공연을 마련한다. 9월 25일에는 미국공연도 계획돼 있다. LA 라리카 극장에서 '한국의 불교무용과 음악'을 주제로 공연한다.

'짓소리'와 '나무영산회상 불보살'을 비롯해 '반짓소리' 장단에 맞춰 나비춤, 범고춤, 타주춤, 바라

춤도 함께 선사한다. 이같은 해외 공연에 앞서 법현 스님은 지난 5일 양재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렸던 '서울국제무용, 음악페스티벌'에서 향, 꽃, 차 공양에 대한 찬탄 무용, 북소리를 통한 일체 중생에 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범고춤, 신묘장구대다라니계송과 천수바라춤 등을 공연

했다. 법현 스님은 "우리나라 고유의 한(恨)과 정중동(靜中動)의 움직임 등 전통적 정서가 스며 있는 한국불교 무용이야말로 외국인들에게 우리의 불교를 알릴 수 있는 좋은 포교 방안"이라며 "이런 취지에서 초청 공연과 국제 무용제 등 해외 순회 공연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빠짐없이 참가해 불교문화 포교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너와 나, 인연의 수레바퀴서 공생”

설치작가 서도호씨 첫 개인전시회 열여



서도호씨의 '낙하산병'.

9월 7일까지 아트선재센터에서 열리는 설치작가 서도호씨의 첫 개인전시회는 현대사회에서의 개인과 집단의 갈등을 6개의 작품들로 풀고 있다. 주목할 작품은 'Karma(업)'와 'Paratrooper(낙하산병)'. 불교에서 '업(業)'을 의미하는 'Karma'는 거대한 구둣발 밑에 수많은 인물이 뛰어가는 행상을 표현했다. 밑에 깔린 사람들이 뛰어봤자 거대한 발의 한 걸음에도 못 미치는 모습을 조명한 것이다. 즉 계층이나 모습은 달라도 인과관계 속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또

'Paratrooper'는 작가가 알고 있는 3천명의 사람들에게 받은 사인(sign)들을 형광 분홍색 실로 수놓고, 그 사인의 끝에서 흘러나온 실들을 모은 후 한 병사가 중심에서 서서 그들을 당기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 했다. (02)733-8945.



이현숙작, '동승'.

다종이 소재 '동승 인형전'

23일까지 통인화랑서

10여년동안 다종이를 소재로 인형을 만들어 온 이현숙 작가가 23일까지 서울 인사동 통인화랑에서 여는 '동승 인형전'에 가면 다종이 특유의 부드러운 질감을 통해 다시 태어난 천진불심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밝고 맑은 모습의 동자승들이 방에서 곁레를 두는 모습, 인속에 두 손가락을 넣고 벌리는 시봉을 하는 모습, 귀를 만지는 모습 등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30여 작품을 선보인다. (02)733-4867.

김주일기자

김스댄싱컴퍼니 멕시코·일·미 순회공연



전통문양 1천여종 CD한장에

디자이너들 작업현장서 활용가능

우리 선조들은 건축구성물 뿐만 아니라 그림, 장신구 하나에 이르기까지 상징과 바깥을 담아왔다. 그리고 상징은 동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암묵적인 공통된 인식을 반영한다.

최근 이러한 전통문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문화산업기획단(이사장 도후 스님)이 '전통문양과 상징'을 CD 한 장에 담아 내놓았다. 이번 CD에는 불교문양과 생활문양 등 전통문양 1천여종이 수록돼

있다. 불교문양에는 단청, 용, 만(만자), 연꽃, 귀면, 문살 등이 다양하게 상징화 돼 있다. 이중 단청 문양은 54종으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생활문양도 정통 백종 주작 현무 등의 사신과 사군자, 코끼리 소나무, 박쥐, 학, 닭 등이 소개돼 있다.

특히 이번 '전통문양과 상징' CD들은 각 문양별로 EPS 파일을 제공, 디자이너들이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제작해 실무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기자



연꽃축제에 열리는 사찰에 가면 곱게 핀 수련을 만날 수 있다.

시찰서 연꽃구경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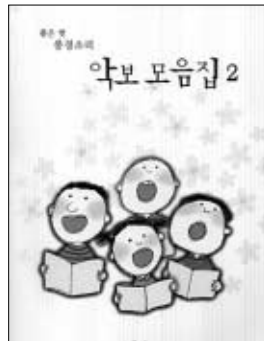
봉원사, 분양·연잎차 다도시연도

연꽃이 만발한 계절을 맞아 사찰에서 풍성한 연꽃축제가 잇따라 열린다.

신촌 봉원사는 8월 12일까지 '제1회 서울연꽃축제'를 연다. 경내에 설치된 수조와 수반에 갖가지 수련과 연꽃이 전시되며 연꽃 산책로를 조성하고 원하는 이들에게 연꽃 분

양도 한다. 연꽃전문 사진작가 선안 스님의 연꽃사진전과 연잎차 다도시연도도 열린다. (02)392-3007.

전남 보성 대원사는 세계각국에서 수집한 30종의 연꽃과 108종의 수련 등을 전시하는 '제1회 대원사 연꽃축제'를 다음달 12일까지 개최 중이다. (061)852-1755.



동요·찬불가 등 60여곡 수록 좋은벗 풍경소리, 악보집2

에는 동요와 찬불가 등 60여곡이 실려 있다.

또 책말미에는 불교음악가 반영규씨가 '불교음악의 어제와 오늘'을 주제로 찬불가의 역사와 찬불가의 종류, 2000년대 찬불가의 모습에 대해 소개해 놓았다.

좋은벗 풍경소리 대표 덕신 스님은 "이번 책발사는 부처님의 노래를 어린이들이 쉽게 따라 부르면서 법당과 온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법음이 항상 가득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철보), 내호함 (도자기), 연꽃문양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은 평안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

납골추모함은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것은 물론 참배까지 쾌적하게 해주는 현재와 미래의 정례문화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납골함을 같은 정소에 많이 모셨을 경우 납골함 자체의 엄청난 무게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있으며, 오래된 유골에서는 강한 악취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이회사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가볍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 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월등히 가볍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탑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

고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나 납골탑에 안치할 경우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새로운 납골추모함이 이러한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랜 연구 끝에 제작 출시 되었습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안전성과 청결성을 갖춘 납골추모함으로 가신이의 영혼을 평안히 모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회사 ☎ 02)392-0925 서울시 중구 중림동 155-2 GS빌딩

(靈,體) 영,체 이탈법 스님이직접특별지도



영, 체이탈이란?

가, 인간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잠재능력을 자극하여 발달된 능력으로 영과체를 분리하여 자신과 타인의 영적인 문제와 운명적인 것을 해결하는 기법입니다.

나, 영, 과체가 분리되면 유체는 무체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전생, 현생, 미래도 볼 수가 있다.)

다, 전혀 무관한, 타인을 통하여 자신이나, 또다른 타인의 빙 몸에 빙의된 영가와 선망 조상영가를 볼 수도 있으며 영가와 자유롭게 대화도 하고 영가를 다스릴 수 있다.

라, 스님들께서는 영가천도 및 구명식 등 산소, 집터 및 기타 운명에 관한 어떤문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마, 참가조건 : 출가스님만 가능함.(최고의 포교법)

바, 수업기간 : 단기간 집중반 복식교육으로 단기일내 신령한 영체이탈법 전문가로 변신 가능함.

- 일반인과 환자들의 영체명감정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 수고비는 직접 면담으로 결정함.
● 스님직통 016-806-6378 / 연락처 02-2637-6636
주소 : 서울시 구로구 구로 1동 597-77(지방본도가능함)

觀 法 寺

韓國靈,體移脫佛敎儀式研究院
住持,院長 道先 合掌